창조적 융합의 시대 - 건설이 이끈다

건설산업 비전, 인문학으로 통찰하라

윤 영 선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syoon@cerik.re.kr)

건설산업이 위기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건설인은 아마 드물 것이다. 모두가 새로운 발전을위한비전을찾아야한다고한목소리를내고 있다. 그런데 비전 찾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위기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증폭되고 있다. 건설인들이 느끼는 위기의 정체는크게 두 가지로압축할수있다.

미래 건설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하나이고, 건설산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 두 번째이다. 압축하면 수요와 제도의 문제이다. 이것은개별기업이직면하는문제이면서동시에 전체산업의문제이기도하다.

건설인들이 위기를 실감하면서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식과 기술, 아니면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다. 진짜 이유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변화를 하려면 고정 관념과 기득권을 버려야하는데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신감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세상을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그리고 진실된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자신감과용기가나오는법이다.

건설업계의 새로운 비전 찾기는 인문학적 도움이 절실하다. 이제 좁은 건설산업의 논리와 지식을 벗어나야 한다. 인문학은 건설산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인문학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다. 인문학적 사고를통하여무한한상상력과창의력을키울수있다. 끝없이 정답만을 찾으려는 건설업계의 경직된문화에충격을줄수있는것이인문학이다.

지금과는다른방식으로, 꿈과용기를갖고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건설업계는 인문학적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건설업계가 인

문학의눈으로고민해야할네가지이슈를살펴보자.

건설 문화, 성찰하라

흔히 문화를‘ 공유된 무관심 이라 부른다. 평소에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적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문화이다. 건설 문화는 알게 모르게 건설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 한국 건설 문화는 상위 문화인 한국인들의 보편적 가치 의식을 담고 있다. 한국인의 보편적 가치 의식에 건설산업의 독특한 산업 특성이 결합한 것이 한국 건설 문화이다. 한국 사회 문화의 특성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건설인들의 행동양식을상당부분이해할수있다.

서구 사회에 비하여 동양 사회는 관계 지향적 문화 특성을 보인다. 법보다는 회사의 방침을 더 중시하는 한국의 기업 문화는이러한 보편적 문화 특성에 기인한다. 네트워크 산업인 건설산업에서한국적기업문화가법위반사례를양산할 가능성이 높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건설 활동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서구 기업들에 비하여 한국 건설기업들의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자기 통제력을 중시하는 서구 문화에 비하여 관계적 상황을 중시하는 동양적 문화가 이러한 능력의 배양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이유로 서구의 건설산업에 비하여 우리 건설업계는 계약 문화에취약한특성을보인다.

한 나라 또는 사회의 총체적 생활양식인 문화에 대하여 쉽게가치 판단을 내릴수는 없다. 건설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양의 건설 문화가반드시한국또는동양의건설문화보다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건설 문화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아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건설 문화가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설 문화는 건설산업의 사회자본(socail capital) 수준을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건설 문화를 통하여 사회 자본의 핵심 요소인 건설산업의 전반적신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신뢰의 사회 자본이 취약한 산업은 안정적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아무래도 지금의 한국 건설산업은 신뢰 수준이 높은 문화를보유하고있다고말하기어려울것이다.

건설업계가 건설 문화를 고찰하고 혁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건설 문화에 대한 탐구는 철저하게 성찰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습관을 반성하듯이 건설업계는 건설 문화를 성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어떻게하면보다나은신뢰의건설문화를구축할 수 있을지 건설인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안된다.

건설 제도, 크게 보자

어떻게하면신뢰의건설문화를구축할수있을까?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과제는 제도의 선진화이다. 여기서 우리는 건설산업을 하나의 공동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좋은 공동체란 신뢰가 넘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익 집단인 건설 공동체를 신뢰형 구조로 만드는 데제도가핵심적역할을한다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좋은 공동체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전체의 규율을 잘 지켜 나가는 공동체를 말한다. 건설 공동체도 그러해야 한다.

좋은 건설 공동체는 건설기업들이 공통의 룰을 잘 지키면서 자유롭게 경제 행위를영위하는 그런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좋은 건설 공동체를 만드는 제도는 모든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최소한의규제를갖는것이바람직하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좋은 건설 공동체를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지옥과 천당에 관한 다음과 같은 우화가 있다. 원래 지옥과 천당에는 둘 다 똑같이온갖좋은것들이다갖추어져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천당의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그것을 잘 활용한 데 반하여 지옥 사람들은 서로 차지하려고 아귀다툼하다 결국에는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 천당도 지옥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좋은 건설산업 공동체도 나쁜 공동체도 결국 건설인들이 만드는 것이다. 건설인들스스로좋은제도를만들어나가야한다.

건설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경쟁의 시장 논리를 강조한다. 서구 선진국들이 대체로 이러한 방향의 건설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틀린말이아니다. 우리건설제도도당연히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공동체의 건전성은 이기심에 기반한 경쟁 논리에 의해서만 구축될 수 없다. 그것만 강조하면 장기적으로 파멸적인 결과를 만들고 만다. 좋은 공동체란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타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깨우친 이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좋은 건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깨우친 이기심에 기반한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건설 제도 만들기는 특히 이 점에 주목하고 고민해야할것이다.

건설 경영, 깊이 생각하라

깨우친 이기심은 좋은 제도 만들기를 넘어서 기업의 경영 방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업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사적 이익은 극도로 이기심을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설기업들이 지혜로워져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극도의 이기심만 추구하는 건설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기업은 돈을 벌어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기업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기업은 스스로 설정한 사명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려고하는고유의가치가그기업의사명이고이것이 목적에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은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충실해야 한다. 돈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건설기업들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남들이 간다고따라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건설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잘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끝없이 묻고 토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탁월한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가‘ 교활한 여우가 아닌단순함으로무장한고슴도치가 되라 ’는말을새길필요가있다.

누가 뭐래도 미래 건설산업은 서비스 산업이다. 건설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정의하는 것은 산업 성격의 변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건설 종사자의 마인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공급자 주도의 대량 소비 시대에는 생산의 효율을 중시하는 제조업적 마인드가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개인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제 모두가 한 길로 가는 미래 건설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비자 만족을 위하여 끝없이 탐구하고 고민하는 서비스적 마인드로 무장한 건설업체만이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건설 인재, 다시 보자

지금까지살펴본건설산업의문화, 제도, 경영의 문제는 결국 사람으로 귀착된다. 건설인재가 미래 건설산업의 비전을 결정한다. 문화도 제도도 경영도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혁신할 수 있다. 사람은 무한한 가치 창조의 원천이다. 모든 건설인들을 열정적, 창의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작업이야말로 확실한 건설산업의 비전을 세우는 출발점이다. 최고 경영자와 정책 결정자, 발주자등건설산업의리더들은이점을가슴에새기면서경영을하고제도를만들어가야할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건설업계는 철저하게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명령 지시, 갑을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풍토를 최우선적으로 버려야 한다. 종속되고 지시받는 풍토에서 건설인들의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건설 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도 기대하기 어렵다. 자신이 스스로주인의식을가질때사람은무한한창조력을발휘한다.

지금부터라도 건설산업의 리더들은 자긍심을 갖는 건설인을 육성하는 데 최선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다. 지구 반대편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도 자기 이빨 아픈 것을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존재가 사람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칭찬받고 존중받을 때 상대와 사회를 인정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한다. 건설산업의 리더들은 제프리 페퍼 교수가 말하는‘ 사람중심의지혜경영 ’을펴나가야한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경쟁력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인문학의 위대함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인문학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학문이다. 그럼으로써 자신과 세상을 혁신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한다. 지금 우리 건설업계는건설인재교육에대하여다시생각해보아야 한다. 건설업체들은 대학이 당장 써먹을 수 없는 사람을 배출한다고 불평한다. 과연 그럴까? 지금도 한국 대학은 지식만 습득하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키워내고 있다. 오늘날 이공대생들에게 인문학은 취직하고 출세하는 데 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학문정도로치부되고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학문과 지식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학과 건설업체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 ’임을 아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보다 많은 투자를해야할것이다.